전남서 '축산악취 해결·탄소중립' 사업 추진된다

농기원, 공모서 국비 30억 확보
마을 축산악취 민원 해결 기대
한우 저메탄 발효사료 개발 박차

전남도농업기술원이 마을단위 축산악취 해결과 한우 저메탄 발효사료 개발을 본격화 한다.

전남도농기원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복합기술 투입 저탄소 악취저감 모델 개발 실증연구'와 농촌진흥청의 '미생물 활용 반추가축 발효사료 제조기술 개발·급여효과 구명'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30억원을 확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축산농가의 악취를 해결하고 전국 최대의 곡물·조사료 생산지역인 전남의 유용자원을 활용해 한우 사육기간 단축을 위한 저메탄 발효사료 개발과 저탄소 그린 축산모델 구축을 위해 추진된다.

최근 과투입 축산업 생산구조로 인해 냄새·분뇨처리에 관한 환경규제가 강화됐고, 축산업 규모화와 혁신도시 조성 등 도시화로 인한 축산악취 민원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국가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축산분야는 2030년 온실가스 30% 감축과 저메탄 사료 30% 보급(2050년 100%)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에 전남도농기원은 환경친화 축산모델 조성을 위해 '복합기술 투입 저탄소 악취저감 모델' 기술 고도화에 나선다.

개별농가 단위가 아닌 축산농가가 밀집된 마을단위에 미생물 농장 구축과 악취·미세먼지 제어, 분뇨 처리단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환경 융·복합기술을 적용할 계획이다.

여기에 저메탄 발효사료 개발을 통해 탄소 중립에 기여하고,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 사료비 절감 정밀 사양기술 개발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박홍재 전남농업기술원장은 "축산악취·분뇨처리·온실가스 감축 등 축산업 현안 해결을 위한 연구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며 "지자체·관련 기업과 협업을 통해 핵심기술을 축산농가에 안정적으로 공급해 정부 온실가스 감축 등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농기원은 지난해 축산냄새 저감 연구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자체 개발한 미생물을 도내 양돈농가에 실증한 결과 악취 물질인 암모니아 83%, 황화수소 92%, 복합악취 65% 감소의 효과를 확인했다.

최황지 기자 hwangji.choi@jnilbo.com

광주시, 미디어아트센터장 개방형 직위로 변경

전문성 강화 위해

광주시가 시립미술관 미디어아트센터(GMAP)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개방형 직위를 도입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광주미디어아트센터장 직위를 개방형 직위(5급)로 지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소통·협력, 미술·예술·과학 등 다양한 분야와 기술의 융복합 등 미디어아트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광주시는 설명했다.

미디어아트 전문가를 센터장으로 영입하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학예 연구관들이 센터를 총괄했다.

광주시는 이를 위해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지난해 유네스코미디어아트창의도시플랫폼인 미디어아트센터의 명칭을 GMAP(지맵)으로 변경했다.

남구 구동에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된 미디어아트센터는 영상을 제작하고 실험·구현할 수 있는 장비들을 구축한 창제작 공간, 실험적이고 도전적인 미디어아트 작품들이 구현된 전시공간,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교류공간인 텔레포트관 등으로 채워졌다.

박상지 기자

전남 동부권 일자리 박람회 참가기업 모집… 31일 마감

전남도가 '2023년 전남 동부권 일자리 박람회' 참가 기업을 모집한다.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일자리 박람회 참여 희망 기업은 1차로 24일까지 참가신청서를 작성해 전남일자리종합센터에 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최종 모집은 오는 31일 마감 예정이다.

'정원에서 찾는 내 일'을 슬로건으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순천시·곡성군·보성군·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여수고용노동지청·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이 함께한다.

전남도와 시·군, 유관기관 간 협력을 통해 지역 특성과 주력산업 맞춤형 기업이 참여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한다.

박람회 참여 기업에는 부스를 무료로 제공해 기업 홍보와 함께 원활한 구인·구직 매칭을 위해 현장 채용 면접을 지원한다.

일자리정책 홍보관과 인공지능(AI) 면접, 이력서 작성·증명사진 촬영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운영해 구직자 취업 역량 강화에도 도움을 줄 계획이다.

김선주 전남도 일자리경제과장은 "전남도를 비롯한 일자리 지원 기관이 일자리 박람회를 통해 정확하고 다양한 취업 정보를 제공해 기업은 우수인재를 채용하고 구직자에겐 양질의 일자리를 얻는 기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 동부권 일자리박람회' 참가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전남일자리통합정보망(https://job.jeonnam.go.kr) '알림마당'에서 확인하거나 전남일자리종합센터(061-750-7700)로 문의하면 된다.

최황지 기자

전남도 "포스코그룹 차원의 조치 있어야"

도, 포스코그룹 본사 포항행에
상생협력 협의 부진 유감 표명

전남도는 포스코그룹 지주회사인 포스코홀딩스 본사 포항 이전과 관련해 21일 입장문을 내고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소멸 위기 극복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전남에도 그룹 차원의 조치를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에 소재한 포스코홀딩스 본사 포항 이전은 지난 17일 확정됐다.

전남도는 "지난해부터 포스코와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방안을 협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성의 있는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유감을 표했다.

이어 "광양 지역민들이 지난 40여 년간 환경 피해 등을 감내하면서도 포스코가 세계 최고, 세계 최대 그룹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도와준 점을 잊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포스코가)이러한 희생에 보답하고 광양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전남에도 그룹 차원의 계열사 본사 이전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황지 기자

국제물산업박람회 둘러보는 강 시장 강기정 한국상하수도협회장(광주시장)이 21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3 국제물산업박람회(WATER KOREA)'에서 내빈들과 전시관을 둘러보고 있다. 광주시 제공

광주 수돗물 단수사태 피해 보상 186건 접수

덕남정수장 유출 밸브 사고
영업보상 73건·필터교체비 36건

지난달 광주 수돗물 단수사태와 관련, 총 186건의 피해 보상 신고가 접수됐다.

21일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17일까지 덕남정수장 유출 밸브 사고로 인한 수돗물 피해보상 신청을 받았다.

신청 내용은 생수구입비 20건, 필터교체비 36건, 저수조 청소 32건, 영업보상 73건, 기타 25건 등 모두 186건(156명)이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 달 발생한 단수사태로 당초 알려진 것보다 1만여 세대가 많은 3만8000여세대가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단수로 인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3만8000여세대의 경우, 별도 신청 절차없이 2월 수도요금 중 이틀분을 일괄 감면한다는 계획이다. 2월 수도요금은 4월 고지서에 반영한다.

상수도사업본부는 광주시 수돗물 수질사고 관련 보상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라 구성한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4월까지 보상 유무·보상금액 등을 결정,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지난달 12일 발생한 덕남정수장 송수관로 밸브 고장으로 3만8000여세대에 수돗물 공급이 중단되고 수돗물 5만7000여톤이 유실됐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상수도사업본부에 감사장을 설치하고 수돗물 사고 원인과 노후관 등 시설물 유지·관리 적정 여부, 재난안전 문자 전파 적정 여부, 긴급복구 적정 여부, 노후시설물 개량 계획, 사고 행동매뉴얼 적정성 등을 감사하고 있다.

박상지 기자

'디지털 성범죄' 증가 대응… 전남도, 특화상담소 본격 운영

성착취물 삭제·심리·법률상담
피해자 치유회복 프로그램 등

전남도가 텔레그램 'n번방' 등으로 알려진 다변화된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해 '디지털 성범죄 특화상담소'를 본격 운영하고 나섰다.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지역 특화상담소'는 상담전화(061-1366)를 통해 365일 24시간 언제나 전문상담사와 상담할 수 있다.

2021년부터 여성가족부에서 매년 공모를 통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여성가족부가 주관한 '2023년 디지털 성범죄 특화프로그램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여성긴급전화 1366전남센터'에서 운영한다.

주요 지원 분야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피해회복 전과정 지원', '피해 촬영물 긴급 삭제 지원·연계', '심층 상담 수사기관, 법률·의료연계 등 1대1 맞춤형 지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유회복 프로그램' 등이다.

유미자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은 "급변하는 성범죄의 특수성을 감안해 국비 지원 특화상담소를 본격 운영한다"며 "올해 하반기에는 자체 지원 공모사업을 통해 지역 특화상담소 1곳을 추가 운영해 성범죄 피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3년 디지털 성범죄 지역특화상담소는 전국 14곳에서 운영된다.

최근 3년 간 전남지역 디지털 성범죄 신고 건수는 2020년 140건, 2021년 300건, 2022년 406건 등 총 846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피해자 중에는 10대와 20대가 63.7%를 차지하고 있다.

최황지 기자 hwangji.choi@jnilbo.com

全南日報 호남 최고 정론지 전남일보와 함께 하세요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